

김 효명 선생의 퇴임에 부쳐

김남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 효명 선생은 1988년 3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22년 반, 육사와 한양대학에서의 재임 기간을 합하면 30년 넘는 가르침과 연구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로 퇴임하시게 되었다. 20년 넘는 서울대학교의 재직기간에 김 선생의 이력서에는 2년간의 학과장과 2년간의 인문학 연구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잡하지 않은 그의 이력서가 그간 조용히 교육과 연구로 보낸 김 선생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외적인 활동이 많은 것은 아니나 김 효명 선생은 학계가 담당해야 할 꼭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철학연구회장과 한국분석철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서양근대철학의 학회를 창립하고 틀을 잡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처음으로 국내 저자들에 의한 '서양근대철학사'를 기획, 창간했으며 이어서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을 역시 공동저술로 출간했다. 김 선생이 시작한 이 작업은 그의 후진들에 의해 계속되어 '서양근대윤리학' 등의 저술로 이어지고 있으며, 꾸준한 학술발표와 출판 작업을 통해 서양근대철학회는 오늘날 가장 내실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회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또한 철학계의 대표적 상인 열암학술상과 서우철학상 운영위원회의 일에 비교적 오래 관여했다. 두 상이 모두 꽤나 긴 기간 동안 큰 잡음 없이 운영되어 온 데에는 김 효명 선생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주위에서 들리는 평가이다.

김 효명 선생의 학부졸업논문은 주제가 Schelling 철학이었던 것으로

로 알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주제로 논문을 썼으며, 미국 Indiana 대학에서 흄의 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관념론 취향의 독일철학에서 관념론에 가장 적대적이라 할 철학적 입장으로 학문적 관심이 바뀌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김 선생의 학적인 면모나 업적들은 아마도 '논리'와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적절히 표현될 수 있을 듯한데, 인식론, 논리철학, 심리철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2002년도에 김 선생의 중심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영국 경험론'으로 열암학술상을 수상했다. 학계의 역사가 이미 100년을 헤아리게 되었지만 각 분야에 믿을만한 표준서라 할 저술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학계의 사정이다. 영국경험론과 서양근대철학 분야는 선생의 저술과 후학들과의 공저를 통해 여타 분야와 분명히 구분되는 뚜렷한 저술들을 가지는 분야가 되었다고 하겠다.

제자들은 김 선생을 '영국 신사'라고 부른다. 신사라는 말이 영어의 gentleman을 번역한 말인데다 김 선생이 영국 경험론을 중심으로 서양근대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붙여진 것으로 안다. 언젠가 인문대 소식지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선생의 이런 호칭에 대해 인문대와 학내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동의의 생각을 표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 같다.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과 예의를 갖춘 남자'라는 국어사전의 신사에 대한 어휘풀이가 말하듯 그는 인품이 점잖고 내면적으로 수양된 사람이다. 우리의 옛 기준에 따라 신사라는 말을 身言書判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이에 꼭 맞는 분이 바로 김 효명 선생이 아닐까 한다. 김 선생이 훗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지닌 분이라는 건 내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각자 자신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를 대하면 김 선생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과장이나 헛된 것을 멀리하고 검박하고 균형 잡힌 그의 삶의 태도를 느끼게 된다. 김 선생의 옷차림도 이런 김 선생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데,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색깔의 선택이나 차림에서 항상 단정하고 은근한 품위를 보여준다. 공적인 일에서나 사적인 일에서나 그의 말은 절제되어 있으며, 문제되는 일에 관해 항시 사안 자체를 우선시한다. 그의 글 역시

핵심을 바로 드러내는 간결함과 명료함을 특징으로 하며, 그의 글씨는 아직도 대학생 시절의 글씨처럼 힘이 있고 강건하다. 김 선생은 이미 10년 넘게 서예를 닦아왔는데 반듯하면서도 날카롭고 힘 있는 필체는 김 선생의 이런 삶의 태도와 내면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상찬의 말을 들으면 대단히 거북해 할 사람이다. 김 선생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다. 사안의 진실 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일을 거의 생략적으로 꺼리는 그의 몸가짐과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간결한 말과 분명한 판단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사안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실 김 효명 선생은 일상에서 나에게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많은 일들에 관해 김 선생과 거의 의견을 같이 하지만 어떤 일들에 관해서 미묘한 차이나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때 대체로 나는 사안 자체와 나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며 나의 판단이나 결정에 과함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그는 공정한 사람이며, 일을 처리함에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다. 김 선생이 열암 학술상과 서우 철학상의 운영에 오래 관여했다고 앞에 얘기했지만 자격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자나 아주 가까운 사람도 추천을 하지 않으며, 후보자의 추천이나 수상자의 결정에서 그는 친소에 관계없이 훌륭한 저자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런 점은 대학의 교원 추천이나 장학생의 선정과 같은 일에서도 그가 일관되게 보여준 입장으로 자신과 직접 관련되는 일에 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학과나 학계의 많은 일들이 본래의 뜻에 맞게 굴러가고 실질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김 효명 선생의 이런 관여가 있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들에 관해 그의 이런 공정하고도 단호한 일처리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이 거의 없고 그를 마음에서 따르는 동료, 제자들이 많은 것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는 그의 겸손한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작고하신 부친과 모친의 喪事를 알리는 일을 극력 만류하

여 대개 우연히 訃音을 받았던 사람들만 문상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의 이런 조출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근대철학회나 학과가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추측한다.

김 효명 선생을 직접 알지 못하고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은 김 선생 을 좀 보수적인 골센님 스타일이나 꼬창 꼬창한 모습의 사람으로 생 각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건 오로지 내 글과 표현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요 전연 사실과 다르다. 우선 김 선생은 스포츠를 좋 아하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다. 근자에 몸이 좀 불편하여 정양을 하시 고 있으나 그가 오랜 기간 일주일에 세 번씩 안양의 자택까지 관악 산을 넘어 다닌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는 배구 등의 구기 도 선수 급의 플레이어였다고 한다. 김 선생의 생각도 실질적이고 진 취적이어서 군사 정권시절은 물론이고 최근의 촛불 시위나 사대강 사업 등 많은 사안에 김 선생의 입장은 진보적이라고 분류하여 큰 잘못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입장은 일차적으로 사안에 즉한 것이어서 자동적으로 어떤 진영에 분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마도 서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 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그곳을 떠나 홀연히 안양 골짜기 산 밑으로 이사를 감행하셨던 일도 이런 자유로 운 정신의 표현이었다고 보면 사모님께서 뭐라 하실지 모르겠다.

정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해가 정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흐르는 해가 정지할 수는 없다. 해도 흐르고, 인생도 흐르고 그리고 할 일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 매주 계속되던 강의의 짐으로부터야 벗 어나겠지만 대학 입학에서부터 쳐도 4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생각과 물음의 일상이 갑자기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강의나 이런 저 런 외적인 일들의 짐을 벗고 한가를 즐기시며 그 사이 생각하고 계 시던 불교 논리학, 불교 심리학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 지게 되리라고 믿는다. 선대부터 독실한 원불교 교도이기도 한 김 선 생은 오래 전부터 불교의 유식론과 자아론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근 대 철학의 자아 이론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이야기해 왔다. 정년과 함께 수업의 짐에서 해방되어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면 김 선생이 오래 품어 왔던 생각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 가리라 생각된다. 벌써 몇 년간 잘 견디고 이겨 오신 신병도 벗 삼으며, 가르침과 삶의 길에서 들여다 본 本地風光을 메모로든 자그마한 오도송으로든 틈틈이 적어가며 넉넉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빈다.